

성옥문화재단, 지역 우수인재 선발 ‘성옥상’ 수여



재단법인 성옥문화재단(이사장 이화일)이 내년 1월 말까지 '2024년 성옥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교육, 예술, 과학, 언론, 문화분야에서 각광받는 인재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목포시 성옥기념관 전경. 성옥문화재단 제공

성옥문화재단(이사장 이화일)이 광주·전남 곳곳에 숨어 있는 인재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후원군이 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교육, 예술, 과학, 언론문화 분야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에 상패·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는 2024년 성옥상 선발에 나선 것.

선발에 이어 성옥문화재단은 매년 장학금 지급도 하고 있다. 올해는 50개 학교 97명 학생에 3억2000만원의 장학금 지급을 완료했다. 매해 성옥상, 장학금 지급, 효부상·모범소녀상 등을 시상·지원하고 있어 지역내 인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성옥상 후보자 추천해주세요”

재단법인 성옥문화재단이 ‘2024년 성옥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성옥상은 지역 인재들에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조선내화(주) 창업자 고(故) 성옥 이훈동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든 상이다. 2024년 성옥상 수상자에는 상패와 상금 5000만원이 시상된다.

시상부문은 교육, 예술, 과학, 체육, 언론문화, 사회봉사 등이다.

역대 성옥상 수상자 현황

2017년	제라딘 라이안 명도복지관 관장·수녀
2018년	윤향미 공생재활원장
2019년	안숙선 판소리명창
2021년	김연준 (사)마리안느와마가렛 신부·이사장

후보자직은 광주·전남도 출신자와 해당 지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 또는 이에 해당되는 외국인, 각 부문 단체·기관을 우선시한다.

후보자 추천자격은 성옥문화재단 임원, 공공기관, 학술단체, 사회단체, 교육기관의 장으로 소정양식의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업적증빙자료를 오는 1월31일까지 목포시 영산로11(유달동4-2)로 제출하면 된다.

이화일 성옥문화재단 이사장은 “광주·전남 곳곳 인재들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 성옥상과 장학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며 “성옥문화재단의 지원이 지역 인재들에게 보탬이 되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훈동 회장의 유지 기려 내년 1월 말까지 후보자 접수

교육·예술·과학·언론문화 분야 내년 2월 성옥상 수상자 발표 수상자에 상금 5000만원 시상

지역인재 등에 장학금 지원해 12회째 효부·모범소녀상 시상

성옥상 수상자 발표는 2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접수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성옥상에 대한 문의는 성옥문화재단(061-244-2527)으로 하면 된다.

●장학금지급 사업 ‘활발’

올해 성옥상은 선정자가 없어 수상하지 못했다. 역대 수상자는 2017년 제라딘 라이안 명도복지관 관장·수녀, 2018년 윤향미 공생재활원장, 2019년 안숙선 판소리명창, 2021년 김연준 (사)마리안느와마

성옥상 장학금 지급 현황

3월	· 25개 대학생 50명, 1학기 등록금 전액 1억6771만3500원 지급 · 판소리 특기생 2명 1000만원 지급
8월	· 25개 대학교 47명, 2학기 등록금 전액 1억6012만2500원 지급 · 판소리 특기생 2명 1000만원 지급

가렛 신부·이사장 등이다.

성옥문화재단은 성옥상 외 매년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성옥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3월12일 성옥장학금을 25개 대학교 50명에 1학기 등록금 전액인 1억6771만3500원을 지급했으며 판소리 특기생 2명에도 장학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 4월21일 문화재단 별관 정원에서 제12회 효부·모범소녀상 시상식을 개최해 상패·상금을 전달했다.

시상식은 정대성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장성연 해남향교 전교, 고철수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교장, 수상자 가족 등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효부상과 모범소녀상은 박순심 여사 효행을 기리기 위해 고 이훈동 조선내화 회장의 며느리와 딸들이 지난 2010년 박순

심 여사 기념회를 통해 작은 선양사업으로 시작했다. 효부상 수상자인 임정례씨는 해남군 계곡면에서 올해 100세 시어머님을 봉양하며 5남매를 키워내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평소 이웃사랑과 봉사정신, 어른 공경의 경로효친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언행을 바탕으로 효부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모범소녀상에는 서수현 목포정명여자고등학교 학생이 선정됐으며 효부상과 모범소녀상은 각각 상패·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1학기 장학금 지급에 이어 지난 8월25일 2학기 장학금 지급이 완료됐다. 25개 대학교 47명 학생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전액인 1억6012만2500원을 지급했으며 판소리 특기생 2명에도 장학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조진용·목포=정기찬 기자

목포항구축제, 문체부 ‘문화관광축제’ 선정

목포항구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2024~2025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

2024~2025 문화관광축제는 올해 개최한 지역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하고 관광객의 인지도 및 만족도, 주민 지지 호응도를 종합한 결과를 반영해 선정 후 지정 관리한다.

26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항구축제는 국내 유일 항구축제로서 전통파시 콘텐츠의 차별성과 역사적 정체성을 인정받아 전국 1200여 개 지역축제 중 25개 지정 축제에 신규로 입성하는 영예를 얻었다.

목포항구축제는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에 선정된데 이어 2019년 유망축제가 지정제로 개편된 후

부터는 2020~2023년 예비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왔다.

시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지정에 대해 전통문화를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우수축제, 조직운영 역량, 지역 사회 기여도, 안전 관리체계 등 우수성을 확인 받고 지정을 받게 됐다고 분석했다.

목포항구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2년 동안 국비 지원과 함께 홍보, 마케팅, 수용태세 개선 등 전문 상담 등을 종합 지원받게 된다.

올해 목포항구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 시장인 파시를 통해 풍요로운 목포항을 재현하고 ‘청년이 찾는 글로벌 파시 항구’라는 슬로건으로 펼쳐졌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최우수상’

민생경제 회복 성과

목포시는 전남도 지역경제활성화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해 시상금 1500만원을 수여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22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일자리·경제 한마당 행사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명창환 전라남도 부지사가 직접 표창장과 시상금을 전달했다.

지역경제활성화 평가는 전남도가 전남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 한해 우수경제시책 발굴과 확산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목포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지표는착한가격업소운영실적, 전국체전 물가상환실 운영실적,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입률,지역사랑상품권 판매실적,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등 4개 분야 14개 지표로 정량(70점)과 정성(30점) 평가로 진행했다.

정성평가는물가안정대책우수사례,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수사례, 사회적 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참여도 등 시군의 노력도를 평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 상권특성에 맞는 전략적

인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누수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올 한해 행안부에서 실시한 상반기 물가안정관리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1억5000만원, 행안부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에 북항뒷개 청춘골목이 선정돼 9억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시장경쟁패키지 지원 공모사업에 원도심상인회가 선정돼 총 66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있다는 평가다.

목포=정기찬 기자